

어르신 효도관광 "경복궁, 청와대"방문



지난 9월 10일 백운교회 총선교회에서는 어르신 효도관광으로 경복궁(경희루)과 청와대를 방문했다. 효도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두부공을 후원 받아 두부 판매로 남은 이익금과 사회봉사부의 후원 등 교우들의 도움으로 재정을 충당했다. 휴게소의 우동을 평생처음 먹었다며 즐거워하시고 목사님과 봉사자들에게 고마움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일도 있구나 하며 모두에게 고마워하셨다. 휠체어를 미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숨은그림: 사다리, 저울, 옷핀, 선물, 스프링]

숨은 그림찾기 응모 시상(9)

그림 속의 숨은 그림을 찾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응모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10월25일 마감/추첨)
<숨은 그림 : 사다리, 저울, 옷핀, 선물, 스프링>

이름:	전화번호:

백운교회 안내 / 백운감리교회는 1904년에 창립된 111년 역사의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백운교회 소식

▶ 응달샘 카페 외벽 채색봉사

김대현집사, 김효진 부부가 바쁜중에도 시간을 내어 응달샘 카페의 외벽을 예쁘게 단장하여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부부의 노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 전교인 야외예배

교회는 10월11일(주일) 오전 예배 후 중주제일교회기도원에서 전교인 야외예배를 실시한다. 각 속 별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간단한 친목게임을 통해 하나되는 시간을 갖는다.

▶ 사회봉사부 원서천 정화운동



축 결혼

▶ 전대한(부 전상국, 모 안종오, 평동식당) : 10월10일 토요일 낮12시 제천 하나웨딩프라자 5층 사파이어홀.

9월호 정답자 발표(8)

9월호 추첨결과 ▶ 이양하(원서) ▶ 박순관(매촌) ▶ 이향숙(제천)로 결정되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습니다.

발행인 : 신상균 목사
 총괄제작 : 백운교회문화부장
 제작실무 : 백운교회 간행팀
 전화 : 043-652-9191
 발행일 : 매월 첫 주일
 Email: vit2be@naver.com
 ※이름 이외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2015년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이웃을!"



Since 1904
 "꿈을 이루는 교회"
 390-883/충북제천시백운면
 천등박달로5안길 8
 Home Page : www.vit2be.com
 담임목사 신상균

[제19호] 2015년 10월 4일 발행 [월간] 창간 2014.4.6



담임목사 신상균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글로 써서 나타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어 내 놓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쉽게 익혀서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위의 글은 훈민정음 서문에 쓰여진 글이다. 세종대왕은 서문에서 '서로 말이 달라 뜻이 통하고자 스물 여덟자를 만들어 자신의 뜻을 알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금년은 한글이 만들어진지 무려

571년째 되는 해다. 그런데 정말 한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알리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만약 불편함이 있다면 한글이 잘못된 것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미 한글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을 보면 한글이 잘못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글을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가면 매일 글쓰기를 한다. ㄱ, ㄴ 부터 시작해서, 철수야, 바둑야. 그리고 짧은 글 짓기, 일기쓰기, 그런데 왜 우리는 한글이 불편할까? 자기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들 일기처럼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학교 갔다가 집에와서 숙제를 했다. 엄마가 저녁을 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이런 사실만 쓰고 말았기에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해진 것이다. 내

기분은 어떤지,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좋은 한글이 불편해지고 만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글쓰기를 해야 한다. 나의 뜻을 담은 글을 써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이유, 내가 싫어하는 것과 싫어하는 이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쓸 때 우리는 한글을 통해 서로 뜻이 통하는 한 민족 한 겨레가 되는 것이다. 혹시 우리 서로 갈등하고 있지 않은가? 서로 대화하다 싸우지 않는가? 오히려 대화

는 단절되고,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노래처럼, 이 가을에 우리가 글을 쓴다면, 그 글은 우리를 더욱 가깝게 해 줄 것에 틀림없다. 오랜만에 오래된 편지지와 만년필을 꺼내, 글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제 주소는 우편번호 27-104 충북 제천시 백운면 천등박달로 5안길 8 백운교회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실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진흥주일"

교회학교 선생님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 아동부 교사 : 이순희, 허진호, 최현미, 이의섭, 윤한주.



▶ 학생부 교사 : 임현숙, 신순희, 김대현, 김순겸.

